

브라가 소식들

갈보리선교회 회보

22호

제15차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해외순회전도 보고

Give Thanks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제15차 해외순회전도를 남미 페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예수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주신 국내외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본회 회원교회와 후원회원, 기도회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쁜소식을 전합니다.

표지명 소개

여호사밧 왕이 이방 동맹군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송하며 나갔다. **하나님**은 복병을 보내 적군들을 치게 하여 **전멸**케 하셨다. 유다 군대는 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였는데 그곳이 **브라가 골짜기**이다.
(대하20장, 브라가는 '송축'의 뜻)

하나님께서서는 갈보리선교회도 각 팀들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춤과 드라마와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국내 외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된 길**로 이끌게 하심으로 그 모든 소식을 한 데 모아 널리 알리면서 하나님께 **더 큰 송축**을 드리고자 이 소식지를 '브라가의 소식들'로 명명하게 되었다.

기간: 2013년 7월 29일(월)~8월 17일(금)

대상지역: 남미 페루

7/31	칼리오마 도시빈민(1)	9	①호세올라가(시장) ②크리스토 비베교회 ③누에바 비다교회
8/1	칼리오마 도시빈민(2)	10	①다 로사테 프르타바(운동장) ②에반젤리카 산티단 만차이교회
3	①빠르끄레 뚜팩(공원운동장) ②인도 아메리카(공원운동장)	11	①빨라브라 데 비다교회(2) ②루즈 데 글로리아 농이인교회
4	①빨라브라 데 비다교회(1) ②한인연합교회 ③뚜무나달 크리스티나 미시오네라	12	엘몬테로스 올리보스교회
5	①데 리누리간도(시장) ②데 리누리간도(운동장) ③데 리누리간도(마을광장) ④임마누엘교회	13	①프리마리아 세쑤다리아(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②바랑가 까탈(마을광장)
6	에스 살루드 병원	14	①만차이(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②꼬레기오 에스페살로스 피노스(장애인학교)
7	리막교회		

Table of contents

- 1p. 제15차 해외순회전도 일정표/표지명소개
- 2p. 페루를 다녀와서-김승석목사
- 3p. 갈보리선교회와 함께하면서-지석길선교사
- 4p-7p. 현지감상문
- 8p-9p. 단원감상문

- 9p. 선교회 소식
- 10p. 평상시 국내 전도집회 감상문
- 11p. 유치장전도 사역과 감상문
- 11p. 최근 국내 집회목록
- 12p. 갈보리선교회 사역소개/후원안내



페루순회전도(제15차 해외순회전도)를 다녀와서

선교회장.충만교회 김승석 목사



먼저 금번 제15차 해외순회전도를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남미 페루에서 3주간동안 수행하고 돌아오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지구 반대쪽으로 가서 전도하게 되어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갈보리선교회가 땅끝까지 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었기에 어느 때보다 우리의 각오와 감회는 참으로 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번 페루 순회전도를 주로 빈민들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정해 주셨고 당초 계획에도 없던 집회들을 가지게 하셔서 하루에 네 번 계속해서 이동하며 집회할 정도로 참으로 최대한으로 바쁘게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마을운동장이나 광장에서 야외집회를 하여 남녀노소 모두를 상대하게 하였고, 현지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는 기존 교인들과 그들이 그동안 전도하여 모이게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하였고, 현지 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하였고, 병원에서는 환자와 간병인들과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하였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함께있는 학교에서는 학교 교정에서 전교생과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리마 한인연합교회에서는 한인들과 가족들(현지인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참으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보잘 것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밤이든 낮이든, 실내에서든 야외에서든 모인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인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기뻐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붙잡고 함께하시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느끼며 큰 위로를 받고, 특히 현지 목회자들이 확신과 위로와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3주간 동안의 페루순회전도에서 발견하고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남미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동안 각종 우상숭배를 해왔으나 대체로 그 마음들이 온순하고 착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카톨릭이 대세이기는 하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전도의 길은 어느 지역보다도 활짝 열려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페루를 비롯하여 남미 나라들의 영적상황은 카톨릭이 각종 우상이 혼합된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어 대부분의 남미 사람들을 과거 마야, 잉카의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극심한 우상숭배자들이 되게 하였고 거기에 극단적 신비주의 계통의 개신교가 그 반향으로 상당히 호응을 받고 팽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정상적인 신학교육도 못 받고 신앙생활 한 지 몇 달, 몇 년 밖에 안된 사람들이 빠스포르(목사)직함을 가지고 개척도 하고 목회를 함으로써 극단적 신비주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정확히 알고 가르치지 못함으로써 여러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이단들이 거의 다 들어와서 금력으로 활발하게 포교활동을 하고 있어 건전한 개신교 목회자들이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 있는 것 같은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개 열악한 목회 환경에 따라 교육과 전도를 효과 있게 전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은 우리가 오직 순수하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짧은 전도자들이 뜨겁게 춤추며 현지어로 찬양하는 것과 드라마로 공연하는 것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치며 설교하지도 않고, 복음과 말씀을 정성을 다해 전하고 특별한 행위(이적,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도 나타내지 않고 있었으나 모인 자들이 큰 감동을 받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 저렇게 신비주의를 나타내지도 않고 오직 복음을 상세히 전하고, 성도와 교회가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하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위주요, 훈련되고 변화된 젊은이들이 뜨겁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일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데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목사들은 갈보리선교회 팀과 김목사가 페루뿐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등 남미 각국에 계속해서 와서 이러한 전도집회를 보여주어 남미의 건전한 개신교회들이 새힘을 얻고 순수한 복음전파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이번의 그 길고도 한편으로는 고달팠던 페루순회전도를 통해 남미 각 나라와 족속들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음을 똑똑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페루까지 가도록 명령하신 주님께서서는 이 부족한 사람들이 페루뿐 아니라 남미 각 나라로 갈 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알았고 우리는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해 기도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를 위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때가 다 되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둘러서 전 세계로 나가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의 세심하고도 풍성한 돌보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하시는 분이, 어느 날 갈보리선교회 단장 목사님께 ‘너는 페루에 있는 장기선교사를 도우라’ 명하심에 순종하여 전화가 왔다. 갈보리선교회 수장으로 1979년부터 오늘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변함없이 순종하시는 단장 목사님이시다. 나는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니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승낙하게 되었다. 선교팀을 통해 한국에서 구만리장천에 있는 페루까지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께 그저 마음으로 감사하고 단장과 단원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할 따름이었다.

문화의 다름과 언어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사람을 연결하려 했는데 그것이 쉽게 풀리지 아니하였다. 사소한 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절대 필요하게 되었다. 그때쯤 아들 결혼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갈보리팀이 군부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참석하여 보게 되었다. 2013년 2월 추운 겨울 주일 오후이었다.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신발이 푹푹 빠지는 추위에 아랑곳 하지 않는 복음 전파와 영혼 사랑함에 가슴 뜨거움을 내심으로 느끼며 놀랐다. 한국과 한국교회는 역시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청년들, 성도들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되었다. 혼합종교가 만연해지고 세속주의가 힘을 받으며 물량주의가 세력을 얻어 큰소리치면서 리더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위해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에 기쁨이 있었다.

선교사가 거하는 곳은 페루 리마 중심가이다. 하나님은 2층 건물을 2005년 말부터 한 장로님의 선교에 대한 헌신으로 무료로 사용케 하셨는데 올해부터 월세를 놓기로 준비된 것이 한국을 다녀온 후 얼마 되지 않아 계약이 이루어져 교회도 리막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과로로 무릎과 다리에 병이 발생하였다. 갈보리 팀이 페루에 입국하는 날 양쪽 지팡이를 짚고 공항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교회가 이사 가고 다리 아픈 것보다 선교팀이 숙식을 열악한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가슴을 더 아프게 하였다. 이 사실을 그대로 선교팀에게 알리었다.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교회에서 광고했고 루이스 변호사가 듣게 되었다. 변호사는 우리 집 앞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분이다. 그는 자기 집을 선교팀 숙소로 쓰도록 내어 주었다. 거실에서는 남자 대원들이, 건넌방에서는 여자 대원들이 자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 감사하며 이틀 동안 교인들과 함께 거실과 방에 페인트칠을 하고 깨끗이 준비하고 거하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 번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변호사는 믿음이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거처를 미리 준비하셨던 것이었다. (이 분이 갈보리 전도집회를 여러 번 참석한 후 주님을 영접함)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신다니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승낙

지석길선교사(페루)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선교팀은 메인스피커를 제외한 모든 음향장비를 한국에서부터 갖고 왔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파함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17일간 거하면서 아침에는 음향장비를 모두 차에 다 싣고 일정에 따라서 현장에 설치를 하고, 마치면 차에 싣고 밤중에 돌아와 선교사집에 보관하였다. 하루의 공연을 네 번도, 세 번도, 두 번도, 한 번도, 매일 반복함도 은혜요, 지역에 따라 전기 상태가 약해 전력이 다운될 때도, 기계가 고장날 때도 대처하는 모습이 어찌면 그렇게 손발이 잘 맞는지 아름답기가 꽃보다 더 아름다웠다.

단장 목사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따르는 단원이나 모두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짐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할 뿐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는 희생의 모습이 보는 이들 모두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풍부하다. 선교팀에게 선교사인 내가 준비해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부गत 풍부하신 창고 같은 큰 슈퍼마켓을 바로 우리 집에 붙여 놓으셨다. 그리하여 때를 따라 단원들 스스로가 필요를 채우기에 넉넉하였다. 더 나아가 선교팀이 현지를 방문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보통 25명이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 없이, 또한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는 대원에게는 때때마다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따름이다. 전도 공연 장소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은 1년 넘게 준비해 온 정성과 실력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안전하게 기거하며,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하게 하지 못한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것이었다. 이는 훈련의 필요성과 함께 성장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었다. 우리 모두 더욱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기대하며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 뿐이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갈보리선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갈보리선교단의 페루선교 여정을
뜨거운 가슴으로 보며.....

리마한인연합교회
홍순민 집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갈보리선교단이 페루에 방문하여 선교활동을 하게 되심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살면서 우리 한국 선교단이 이렇게 먼 곳까지 날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찬양할 때나 예수님 일생을 묘사하는 무언 성극 중에 어찌면 저리도 대원들이 진지하고 감동적일까 하고 말합니다. 일부대원은 극중에 흐르는 감동의 눈물을 제가 보면서 저도 어느덧 눈시울에 이슬이 맺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한 번 가슴으로 되새기며 어느덧 그 속에 동화되어 같이 호흡하며 주님을 느꼈습니다. 리마한인연합교회 정문에 버스에서 내리시면서부터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과 끝난 후 정리정돈 또한 신속함을 보고 '예수를 잘 믿으면 아이들을 군대 보내도 걱정이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충만교회를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선교를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교회인 것을 알았고 또한 페루 선교일정표가 작성되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시는 그 길로 가려면 기도와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즉,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경우가 우리 갈보리선교단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선교회가 가는 곳마다 잘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교회 안에 정말 전도를 해야 할 사람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실감했습니다.

자! 우리 리마 한인연합교회의 교우여!! 우리는 갈보리선교단의 거룩한 복음전파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같이 일어나서 동참하여 잃어버린 단 한 명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선교단을 파송 후 한국의 충만교회에서 선교단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교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충만교회에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실 줄로 진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빨라브라 데 디오스교회
Alison Mirel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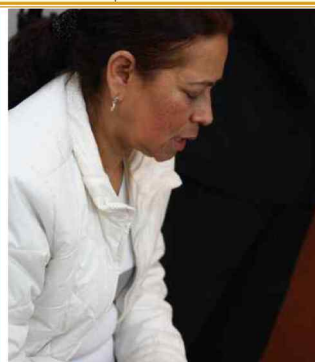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리마한인연합교회
석유수 집사

예수님의 일생을 드라마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준비를 하셔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페루 방문이
저희에게 큰 축복입니다

몬떼 데 로스 올리보스 교회
Violeta Vega

저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의 페루 방문이 저희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춤, 무대, 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에 관한 건 다 멋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어 감사합니다. 한국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로스 페노스 학교
Ana Maria

너무 멋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안에
우애와 믿음의 표시

Mabel Sonia Guzman

저는 이틀 연속 갈보리 선교단의 무대를 보러 왔습니다. 말씀, 찬양, 기도 다 너무 좋았고, 한국 선교사님들의 단합도 정말 좋았어요. 우리 교회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애와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몬떼 데 로스 올리보스 교회
Kiomy Soona

이 무대를 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걸 보며 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청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보기 정말 좋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더 집중해야 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그리스도 비베 교회
Cornelia Caceres Taype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무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뿌에블로 데 까탈 쑤베 교회
Manuel

페루에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페루 방문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말씀의 칼날이 가슴을 찌를 때 감동과 회개가 일어나
여기저기서 감동과 회개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리마한인연합교회
배원진집사

한국에서 20명의 갈보리선교단이 지구 반 바퀴를 돌아 페루에 왔다. 이들이 온 목적은 국교가 가톨릭인 페루 땅에 주님의 복음을 수출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결과는 대박 초대박이었다. 갈보리선교단은 10대에서 60대까지의 나이이다. 그런데 이 분들을 보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청년이고 모두가 소녀들 같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슈퍼주니어와 걸 그룹 소녀시대를 좋아한다. 그런데 갈보리선교단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와는 달리 심령 깊숙이 영생의 기쁨과 주님의 감동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율동 또한 그들 못지 않았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가슴까지 뭉클해진다. 그래서 갈보리선교단이 더 좋았다. 무언성극을 통하여 보인 예수님의 수난을 리얼하게 표현했을 때는 무대이지만 실제에 가까운 음향 효과와 함께 단원들의 열심을 보면서 주님의 고뇌와 고난 받으시는 장면을 재연했을 때는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이렇게 무정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눈물이 뜨겁게 흐르고 있었다. 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병든 심령들을 수술하기에 충분한 날선 칼과 같은 메시지였다. 그리하여 말씀의 칼날이 가슴을 찌를 때 감동과 회개가 일어나 여기저기서 감동과 회개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마라나타!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편만할 그 날까지 갈보리선교단의 복음의 횃불과 복음의 깃발이 영원하기를 기대한다. 갈보리선교단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교회와, 교우들과, 선교회와 단원들과, 활동하는 선교지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그 옛날 바울 사도보다도 더 멀리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갈보리선교단원들 모두에게 감동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제겐 정말 잊을 수
없을 무대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비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대, 목사님의 말씀, 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겐 정말 잊을 수 없을 무대일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형제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춤을 통해 간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형제님들이 되세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무대를 보고 감동받았을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aria Terrones

한국 기독교인들의 무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무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페루사람들인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린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우린 모두 주님 안에 형제자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미교회

Pablo Junior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누에바 비다 교회

Maria Pizzaro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 표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푸에고 디비노 교회

Ronald Hueria Baylin

이 행사는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안무, 메시지 다 너무 좋았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공연을 보며

**리마한인연합교회
강윤희 집사**

그들의 열정적인 공연을 보며 전도하는 일에도, 사랑하는 일에도 게을리 했던 나의 연약함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간은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낍니다. 단원들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섬김을 통해 헌신의 모습으로 공연하는 그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선교열정이 가는 곳마다 확산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에 의지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길 소원하며 이렇게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두 문화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Mario Rivas H.

이 감상문을 통해 갈보리 선교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다른 두 문화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기도, 춤,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포옹까지. 하나님 안에 우린 하나라는 걸 가르쳐주셨습니다.

**함께 했던
갈보리선교회를
생각하며**

**빨라브라 데비다 교회
박창근전도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집회일정이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많이 부족하고 어려웠을텐데 웃음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갈보리선교회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사용하는 모습에서 저 또한 힘을 얻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귀한 만남을 맺어주심에 감사드리고 언제나 활기차고 밝은 갈보리선교팀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화이팅!



리마한인연합교회

송요한 집사, 강진욱 성도

갈보리선교회에서 준비해주신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예수님의 업적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고, 이를 통해 열심히 선교하시는 갈보리선교회 분들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위십과 찬양 또한 너무나도 큰 감동을 줍니다. 이 감동을 더욱 더 많은 곳에 전파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르헨 델라 뿌에르타
유치원, 초, 중 학교
Alexander Sanchez Espinoza**

안무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 너무 멋있었어요. 기도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누에바 비다 교회
Sihay Ibaiez Junco,**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청년들의 단합이 너무 좋았고, 조명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언어의 벽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거라면 언어의 벽도 무너집니다.

**알리안싸 프리스띠아나
미썬오네라 교회**

Monica Susanabar

단합이 정말 좋았고 형제자매님들의 춤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 그리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소리 없는 함성과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윤설화 단원

오늘은 농아인교회 집회가 있었던 날이다. 듣지 못하는데 우리의 찬양,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 날이었다. 그러기에 단원들 모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 시켜주시기를 기도했다. 역시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 감화 감동시키사 수화로 영접기도를 열심히 따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뜨겁게 감화 감동 시키셨다. 모든 단원들은 그들의 소리 없는 함성과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들었을 것이다. 나 또한 귀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러 온 우리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그들의 음성들이 들리는 듯 했고 그것은 내게 잊지 못할 큰 감동이었다. 페루 땅에서 육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영혼들이 얼마나 값진 사람들인지 너무나도 소중한게 느껴졌고 그들도 우릴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랐다. 세상의 어떤 잘난 사람이 옆에 있는 것보다 비록 몸이 성치 못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날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 하나님은 또 내안에 남아있던 편견도 회개케 하셨다. 나는 세상에 귀속되어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나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서 또 변화되고 더 변화되어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속히 되어야겠다.

정직한 복음 선포에

매우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으셨다.

유인혁 단원

오늘은 원래 집회가 없는 날이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의 첫 집회 후 집회가 계속 생겨나서 오늘은 무려 4번의 집회가 있었다. 비가 온 후 질척거리는 바닥에 천막을 깔고 시작했던 시장과 두 번에 걸친 야외 운동장집회, 그리고 많은 현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의 집회는 김승석목사님과 안경환선교사님의 열정적인 복음선포와 통역,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로 길 가던 심령들의 마음을 울렸고 많은 사람의 결신을 이끌었다. 현지의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의 위섭, 무엇보다 짧지만 예수님께 우리를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환호해 주셨고 또한 정직한 복음선포에 매우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으셨다. 4번의 집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솟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힘을 얻는 집회들이었다. 몇 번이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감사드린다.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 드립니다.



복음이 왜 선포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선포되어야 하는가?

이기성 엔지니어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페루에 도착하여 사역한지도 벌써 5일째를 맞이하였다. 새벽5시에 기상하여 식사를 마친 후 기자채를 신고 집회지역인 초리오스 지역으로 향하였다.

나지막한 건물로 이루어진 동네에 도착하여 마을 중앙에 위치한 공원 농구코트장에서 장비를 설치하며 집회를 준비하였다. 전력 사정도 부족하였고 거리의 위생상태도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였다. 주말이라 집회장소 주위에도 인적이 한산하였다. 단원들과 현지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집회 시작 전까지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 모인 상황에서 집회를 시작하였다. 날씨가 늘 그랬듯이 햇볕한줄기 없는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 야외집회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났었다. 점점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지금껏 보지 못한 광경을 보며 집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다. 인구의 85%가 가톨릭 신자인 나라에서 마리아를 부정하며 그들이 섬기는 마리아도 죄인임을 선포하는 말씀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이다. 복음이 왜 선포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선포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는 확신을 다시금 가지게 되었다.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며, 이미 알지만 다시금 그 믿음을 다잡기 위하여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일에 쓰임 받고 있는 우리야말로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늘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의 모습으로 남은 일정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복음의 열정**을 불어넣어준 이번 순회전도

김현철전도사

이번 순회전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많은 집회를 하였다. 시장과 현지인 교회 두 곳을 하루에 소화하기는 쉬운 것은 아니었다. 특히 첫 집회인 시장(길목)에 도착했을 때 다들 '설마 아니겠지?' '다른 곳이겠지?' 걱정하는 모습이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장소가 뭐가 중요한가?' 라는 답을 이번 순회전도를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화려한 무대, 깨끗하고 좋은 시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필수요건은 아니었다. 세 번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복음의 열정을 불어넣어준 이번 순회전도를 통해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셨다

조민수 단원

내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해외 순회전도를 우리나라의 정반대 편에 있는 페루로 왔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생각만 해도 설렌다. 부족하고 못난 나를 그 일에 써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오늘 집회를 가졌던 곳은 칼리오마 지역 도시 빈민들이 산다는 폐극장이었다. 옛날엔 극장으로 썼다가 지금은 빈민들이 그 곳에서 산다는 것이었다. 솔직히 그 건물에 처음 들어섰을 때 아주아주 경악했다. 지린내에 엄청난 먼지와 옛 흔적은 거의 없고 벌레들이 잡아먹어 너털너털한 나무들에 부식된 콘크리트까지, 무대로 쓰는 단 위의 바닥엔 쌀 같은 벌레가 가득했다. 어떻게 이런 곳에 350명이라는 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을 첫 번째, 두 번째 전도 집회장소로 정해 주셨다. 가장 낮은 자, 비천한 자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셨다. 비록 가진게 없고 사는 환경이 열악하지만 이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더욱 깨닫게 해주셨다.

Calvary News

진중세례식

이 진중세례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3.2월 10일에 남평양노회 주최로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과 함께 9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진중세례식이 있었습니다. 500여명의 참석가운데 250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단

유인현(21세, 불당충만교회), 이시형(20세, 불당충만교회), 임희훈(20세, 불당충만교회) 이 후련의 괴경을 거칠 후 경식 입단하여 함께 시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안수

김현성강도사(메세지위원, 서울, 승동교회)의 목사안수식이 2013년 10월 14일에 김포성문교회에서 있습니다. 능력의 종이 되도록 매일 기도해주세요.

강도사인허

김현철전도사(기자재간사, 메세지위원, 분당충만교회)의 강도사 인허식이 2013년 10월 14일에 김포성문교회에서 있습니다. 내년에 영광의 목사안수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김현철전도사 &

기이영간사 득남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부모의 뒤를 이을 예비전도자입니다.



**저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가 누구시길래**

52사단212연대 2대대
일병 도신은

갈보리선교회의 예배는 언제나 웅장하고 스케일이 남다르다. 배경음악이 많아서도, 등장하는 인원이 많아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온 몸으로 예배할 때에 임하는 그 마음들이 매우 크기에 갈보리선교회의 예배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저들의 손짓 하나에, 목소리 하나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져 이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가 누구시길래 이리도 크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려는가 싶어 보고 있는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갈보리선교회를 통해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건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며 그 사랑이 갈보리선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뿜어 나오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1사단178연대
일병 장원

제가 야간종교행사를 많이 와보지는 않았지만 이번 야간종교행사는 다른 때 보았던 행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갈보리선교회의 멋진 안무와 하모니로 시작된 공연부터 간사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며 죄악과 회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열심히 회개하며 성경대로 살아가서 모든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도 인상깊이 잘 봤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이 인상적이었던 공연은 한 가정의 아들이 악한 영의 꼬임에 넘어가 가족을 뒤로하고 나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세상에 버림을 받았을 때 오로지 그를 감싸고 받아주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이야기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총에 대해 알게 되며 천국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멋진 공연과 주옥같은 말씀을 들은 이번 종교행사는 저에겐 잊지 못할 행사가 될 것이며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충격과 도전을 받고 큰 감동을 받아서
눈가에 축축하게

평강의 집(노인요양원)
선덕숙 간호부장

평강의 집을 찾아주신 갈보리선교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말도 못하고 귀도 잘 들리지도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우리 어르신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충격과 도전을 받고 큰 감동을 받아서 눈가에 축축하게 심금을 울리게 했습니다. 어느 메시지 보다는 강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고 돌아온 탕자를 기뻐 용서하시고 큰 잔치를 열어 열렬히 환영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선교단, 영원히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선교단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딜 가지든지 그곳에 주님의 복음
과 숨결이 스며들 것 같습니다

3사단18연대2대대
상병 소문탁

오랜만에 보는 연극과 합창단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딜 가지든지 그곳에 주님의 복음과 숨결이 스며들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한 공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진짜 복음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2기잡여단 6전차대대
병장 박주섭

전역을 20일 정도 앞두고 그동안 고된 훈련들과 수많은 일들을 돌아보며 군생활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해결할 수 없던 일들과 폭풍 같은 시간도 있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던 적도 있었지만 신앙이 저를 견디게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진짜 복음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선교회 분들을 만나도록 이곳까지 인도하셨나 봅니다. 감사하고 사역위에 늘 기쁨부으심



유치장전도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복음의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기뻐하신다

유인혁단원

하나님께서 배부신 은혜로 갈보리선교회의 단원과 전도자로 세워져서 주일에는 군부대의 집회에,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는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순수하게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경찰서 유치장이라서 그런지 처음에는 웬지 조금은 두려웠다. 아무래도 법을 어긴 사람들이 와서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려면 듣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말들에 대해 거부감이나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복음의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유치장 전도를 통해 더욱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역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비록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깨닫고 배워간다. 그들과 우리는 그 예배시간동안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할 때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는 것이다. 유치장 전도가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져서 참으로 갇힌 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바란다.



서울임-서울강남. 강동서를 격주로 토요일에 실시
대전임-동부서, 서부서, 남부서, 북부서, 청소
년 분류 감호소를 매주 토요일 순회 실시

집회목록

2012 8월 ~ 2013년 9월

8/7	국군이동병원	11/11	1포병여단898대대	2/3	구세군과천양로원
8/8	와우리주간보호센터	11/18	55사단170연대1대대	2/10	51사단167연대3대대
	해군제2함대사령부	11/25	7포병여단661대대	2/24	9사단신병교육대
8/9	송탄실버랜드	12/2	1사단전차대대	3/1	6군단6포병여단911대대
	경기도광주대대	12/9	1사단15연대1대대	3/3	영락경로원(노인복지시설)
8/10	사랑의요양원(노인복지시설)	12/16	2군수지원사령부86정비대대	3/10	17사단100연대
	수도군단10화확대대	12/23	2기갑여단6전차대대	3/17	이천한나원(노인요양시설)
8/12	제5탄약창	12/30	성은실버케어스(노인복지시설)	3/24	6사단2연대
8/13	36사단포병대대	1/6	주향교회(목포)	3/31	아름다운요양원(노인복지시설)
8/14	동곡요양원(장애인복지시설)	1/7	31사단93연대	4/7	1포병여단868대대
	논산정신요양원	1/8	선회노인요양원	4/14	수연당(노인복지시설)
8/15	성심보육원		31사단93연대3대대	4/21	17사단102연대2대대
	참아름다운교회(대전)	1/9	해남노인요양센터	4/28	6사단7연대1대대
8/16	두송요양원(노인복지시설)		고당교회(해남)	5/5	한국보훈병원
	평택예비군훈련장	1/10	해남의망원(장애인복지시설)	5/12	한국외국인선교회
8/17	봄날서울요양원(노인복지시설)		31사단93연대4대대	5/19	1113공병단157공병대대
	수도군단159공병대대	1/11	목포장애인요양원	5/26	20사단포병여단
8/26	수도포병여단757대대		31사단96연대1대대	6/2	평강의집(노인복지시설)
9/2	1포병여단868대대	1/13	2사단63포병대대	6/9	61사단178연대
9/9	성은장로교회(충남홍성)	1/14	애향원(장애인복지시설)	6/16	8사단포병여단73포병대대
9/16	61사단177연대		12사단52연대	6/23	55사단171연대2대대
9/23	연약사랑나눔요양원	1/15	실버홈(노인요양원)	6/30	임마누엘집(장애인복지시설)
9/30	1포병여단652대대		12사단37연대3대대	7/7	52사단213연대
10/3	예가원(장애인복지시설)	1/16	2사단62포병대대	7/14	52사단212연대
10/7	6군단16화확대대	1/17	양구노인전문요양원	9/1	3사단18연대2대대
10/14	이천한나원(노인요양시설)		3포병여단922대대	9/8	2기갑여단6전차대대
10/21	61사단178연대	1/18	양구소규모노인요양원	9/15	52사단212연대
10/28	스완스기념관유지재단중앙양로원		21사단96포병대대	9/18	25사단70연대1대대
11/4	52사단213연대	1/27	공군20전투비행단		성은실버케어스

사역 소개

국내사역

특별전도팀 사역

***본 팀의 전도집회**는 A,B,C,D프로그램 중 대상에 따라 가장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집회(공연)이 이루어지며 복된 말씀은 본 회의 메시지위원(목사 외)이 2회로 나누어 영력 있는 말씀으로 큰 은혜와 감화를 끼치게 됩니다.

***각 프로그램에 따라** 감동의 찬양과 위십 댄싱이 어우러지며 천지창조, 예수님의 일생, 탕자의비유, 우리가 진정바라는 것, everything 등의 드라마가 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집회가 됩니다.

***본 집회를 통하여** ① 새 교우나 연약자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시되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② 기성 신자들은 영적 각성과 변화를 큰 감동과 함께 경험케 됩니다.

군부대공연전도

각종 휴일과 매주일 저녁에 전후방 군부대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전도하는 가장 주된 사역

교회찬양전도부흥집회

각 교회의 초청을 접수하여 순차적으로 택일하여 주일저녁시간에 가지는 특별집회

중.고.대학교공연전도집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특정일에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특수기관공연전도집회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재활원, 병원 등 각 특수기관의 초청으로 특정일에 방문하여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순회공연전도집회

평상시 원거리 지역을 위한 전도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키 위하여 1월과 8월의 휴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국내 각 지방을 연차적으로 선정하여 2-3 주간 동안 군부대,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기업체 등과 각 교회에서 특별전도집회를 하는 사역

유치장전도팀 사역

서울의 강남, 강동경찰서와 대전의 동, 서, 남, 북부경찰서, 청소년분류감호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팀들이 있으며 토요일 오후시간에 사역합니다.

해외사역

해외순회공연전도사역

2-3주간을 설정하여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현지교회와 함께 학교, 교도소, 마을광장, 공연장 등에서 전도집회를 합니다.

선교사지원사역

재정과 기도, 순회전도, 교회건축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역입니다.

교육훈련 사역

수요정기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7시30분에 본부교회인 분당 충만교회에 모여 영성훈련과 프로그램 연습을 합니다.

제자훈련반

수요정기모임과 함께 가장 주된 훈련프로그램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4시에 본부교회에 모여 찬양과 기도, 성구암송, 큐티나눔, 말씀공부, 통성기도로 모든 사역을 위해 정예일꾼으로 훈련합니다.

팀모임

매주 1회 팀별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한 주간의 생활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훈련

1월과 8월에 실행하는 국내외순회전도 전에 약 2회에 걸쳐 한 주간씩 훈련을 받는 시간으로 모든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며 순회전도를 위해 철저히 준비합니다.

후원회원, 기도회원, 단원 모집안내

1. 후원회원: 물질과 기도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 교회 - 후원금 송금은 월별 또는 연간으로 선택해서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농협:017-12-077384
*국민은행:825-21-0082-437
*우리은행:146-08-237723
(예금주/김승석)

2. 기도회원: 모든 사역을 위해 매일 기도로 동참하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이나 또는 본회가 별도로 보내드리는 보고서의 기도제목을 답지하시고 매일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3. 특별전도팀, 유치장전도팀 단원: 실무사역훈련을 받고 국내외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학습교인이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31.713.0807 / www.calvarymission.com / 갈보리선교회.kr 또는 갈보리선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